논어 19편 자장 5장 · 쓰기 연습

子夏曰：「日知其所亡，月無忘其所能，可謂好學也已矣。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夏 曰 日 知 其 所 亡 月 無 忘 其

所 能 可 謂 好 學 也 已 矣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